

〈제 715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신년사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노력-



계묘(癸卯)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장기화되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야기된 글로벌 공급망 대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까지 겹치며 복합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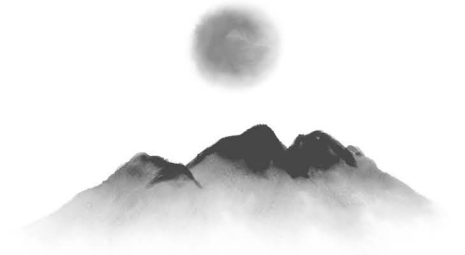
이러한 여파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금리와 자금 경색으로 소상공인, 기업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새해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측되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1%대로 낮게 전망하는 등 우리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경직적 노동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5만 대 생산을 달성하고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래산업인 인공지능(AI) 산업기반도 선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올해, 우리 광주경총은 기업의 활력 제고와 경제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경총과 더불어 대정부 및 의정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도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노사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고용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새로운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대전환 시대에 우리 지역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경험과 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경영혁신과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금요조찬포럼도 산업 대전환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경영 트렌드와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각계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회원 배가 활동을 통해 회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경영계의 동참을 확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와 합리적인 노동경제 정책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광주경총의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키고 도약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 1. 1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봉 길



광주순환도로투자

◆ 1천만원 기탁



광주순환도로투자 · 광주순환(대표이사 이영훈)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는 KBS광주방송총국 총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광주순환도로투자 · 광주순환 이영훈 대표이사, 박문석 이사, 지창환 KBS광주방송총국장, 김재규 광주모금회 시민참여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영훈 광주순환도로투자 대표이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부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 제13대 송중욱 은행장 퇴임식 가저



광주은행은 지난달 30일 본점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 퇴임식을 가졌다.

지난 2017년 9월, 자행 출신 최초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된 송중욱 은행장은 6년여만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취임하는 자행출신 고병일 은행장에게 바톤을 넘기고, 신년 1월 1일부터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퇴임식에서 “첫 직장인 광주은행에 행원으로 입행해 광주은행 최초 자행출신 은행장을 지내기까지 광주은행과 함께한 30여년의 삶은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운을 떼며, 믿고 따라와 준 직원들과 광주은행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민 및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기아 AutoLand광주

◆ 산타원정대 후원 '훈훈'



기아 AutoLand광주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박치용 경영지원실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 본부에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광주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꿈 응원선물,

학습비 정기지원, 난방비 지원 등으로 사용됐다.

기아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더욱 밝은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을 실시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 광주시에 빛고을장학금 1500만원 기탁



오비맥주가 광주광역시에 빛고을장학금 1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장학금 기탁식에서 오비맥주는 문영훈 행정부시장에게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윤섭 오비맥주 광주지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과 희망을 위해 정진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기업의 핵심 이념인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비맥주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빛고을장학재단에 총 5억9,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제이에이치관광개발

◆ 계묘년 맞이 이벤트 선보여



제이에이치관광개발(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아 객실 패키지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객실에서의 1박과 함께 ▲조식 뷔페 2인 ▲공드린의 ‘루이보스 티: 래빗’ 1박스 ▲2023 새해 쿠키 세트 ▲사우나 2인 ▲피트니스센터 · 실내 수영장 무료 입장으로 구성된 ‘2023,

묘(卯)해’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번 패키지는 오는 1월 24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해양에너지

◆ 광산구자원봉사센터서 ‘희망산타’ 행사



해양에너지는 지난달 광산구자원봉사센터에서 ‘2022 자봉이와 함께 희망산타’ 행사를 진행해 후원금 4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기업봉사단과 일반 자원봉사자 약 100명이 모여 후원증 전달, 산타 선서식, 선물 포장, 선물 배부 등을 통해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아동 및 독거어르신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은 “자봉산타 행사가 홀로 지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에너지 임직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담겨있는 후원과 선물이라 더욱 뜻깊고, 앞으로도 이웃에 따뜻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알 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정 열 총무팀장

○ e-mail : gjef3425@naver.com

광주테크노파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는 안전보건분야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최고경영자,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 예방해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시스템이다.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국제공인 안전 기준으로 제정했다.

이번 인증취득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관련규정 제정, 내부심사원 육성, 임직원 교육 등을 이행,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심층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원장은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뿐만 아니라 150여개 입주기업들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 제주도서 다문화 가족 힐링캠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2박 3일간 제주도서 '2022 적십자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다문화가족 6가구 총 24명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힐링캠프는 외국인들이 결혼,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해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들에게

국내 적응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정 지사회장은 "금번 캠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관계가 개선되고 가족 간의 소통의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귀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경제칼럼



박성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이사장

날로 힘들어지는 경영환경에서 고전하며 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존경심과 안타까움을 가져 보고 한다. 그런데 말이다. 오늘은 반기운 소식 한가지가 있어 전하고자 한다.

며칠 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시상식을 가졌다.

다름 아닌 2022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지원사업 성과보고회였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역의 20개 기업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관리 전반에 대한 활용해법을 찾아 주는 유한 성과프로젝트인 셈이다.

그동안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는 이들에게 제품의 기획·설계, 제조공정관리, 마케팅, 그리고 A/S 서비스 등 가치사슬에 이르기까지 데이터관리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데이터관리, 이래서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데이터관리 역량이 부족했기에 이번 사업은 때늦은 감은 있었지만, 사업초기에 비해 데이터 활용능력이 21.9% 늘어 났고,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이라는 성적을 보여 고무적이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았음에도 수용해주지도 못하고 예산의 제약이 있어 일부 기업에게만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이번의 성공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된다면 수도권과 데이터 활용역량 격차를 해소하면서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데이터관리 능력을 신장시켜 가는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번 과업이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우수사례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불록을 생산·판매하는 A회사의 경우는 최근 7년 동안 원구와 관련된 인터넷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을 세분화하고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MZ 세대 맞춤형 교육완구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인공기능 기반 수질 정화 로봇을 제작·판매하는 B회사는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 분석으로 수질 데이터 등급판정

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 데이터 시각화 정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파악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제조업 아닌 의류서비스를 제공하는 C 의류기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병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뒷받침됐기에 처음부터 성공 예감을 갖게 됐지만, 치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변화된 SNS 마케팅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외래환자 17.4% 입원환자 12.6%가 증가하게 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안전재고량에 대한 분석으로 경영효율화를 달성한 D기업, 육상 새우양식을 스마트화한 E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급한 우수기업 이외에도 미처 소개하지 못한 기업까지 망라하여 2022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데이터 분석 활용 및 지원사업의 활동 성과를 사례집으로 펴내, 지역 내 유관기관과 중소기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 데이터관리사업을 확대 운용해가면 우리 지역 기업을 위한 데이터 활용생태계가 만들어져 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데이터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리, 이래서 중요하지 않는가.

II. 광주경충 소식

〈제1585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정호승(시인) 주제:정호승의 詩 이야기-다시 한 해를 보내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2월30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정호승 시인을 초청 「정호승의 詩 이야기-다시 한 해를 보내며」란 주제로 제158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삶이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시간에 매듭을 짓는 것은 인간의 지혜이다. 꽃이 피면 열매를 맺고 반드시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2022년의 한해를 책임지는 것, 시간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가?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가까운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사랑은 모성으로 완성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안다. 인생은 용서를 전제로 한 모험이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내 과거를 해방시키고 현재의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다.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사랑 없는 고통은 있어도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고통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견디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을 필요로 하듯 행복은 고통을 필요로 한다.



사무국 일지(12.26 ~ 12.30)

12.26 (월)	● 노사 간담회	12.29 (목)	● 광주청년일경험사업 12기 성과공유회
12.27 (화)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간사 회의 ● 산업안전공단 서면심사	12.30 (금)	● 제1585회 금요조찬포럼

Ⅲ. 노동경제동향

한눈에 보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시행일자	분야	내용
2023. 1. 1.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 : 시간당 9,160원 → 9,620원 (5% 인상) •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 2,010,5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월 환산액 기준 정기상여금 5% 초과, 복리후생비 1% 초과
	근로시간	-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2022. 12. 31.) 만료 • 현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율 인상 • 직장가입자 6.99% → 7.09% - 노인장기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액의 12.27% → 12.81%
	외국인근로자	- 방문취업(H-2) 비자의 서비스업 활동범위 규정 방식 전환 • 가능 업종 열거(포지티브) → 제한 업종 제외 가능(네거티브) -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산업안전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변경
2023. 1. 12.	산재보험	- 건강손상자녀 *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실시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
2023. 1. 16.	산업안전	- 물질보건자료 작성·제출, 제공 등의 대상 확대 • 제조·수입한 MSDS 대상물질 1,000t 이상→100t 이상 1,000t 미만
2023. 2. 3.	외국인근로자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산재보험 등 가입 의무화 •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등
2023. 2. 19.	산업안전	-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운수 및 창고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확대
2023. 7. 1.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업안전	-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 충돌위험 방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 체결
2023. 8. 18.	산업안전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참고] 2022년 12월 시행 법령

시행일자	분야	내용
2022. 12. 10.	모성보호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처벌 신설 : 1억원 이하 과태료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 12. 11.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규정 개정 •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시행령 → 법률 상향 및 일부 수정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처벌받은 사업주 : 3년간 고용 제한

특별 법제동향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

I 요약

□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는데, 2023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1% 초과분이 각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근로시간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의 유효기간은 2022.12.31.까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을 고려해 국회에서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논의 중이다.

□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대상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2023.8.18.),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등의 대상이 연간 제조·수입량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으로 확대된다(2023.1.16.). 산재보험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손상자녀*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2023.1.12.)되고,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한 노무제공자 적용 특례가 (2023.7.1.) 시행될 예정이다.

* 건강손상자녀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인자 등에 노출돼 부상, 질병 등을 입고 태어난 자녀(사망도 포함)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Ⅲ. 노동경제동향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12.81%로 인상된다.

□ 노사협의회 (22.12.11. 시행)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었고,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규정이 삭제됐다(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고용 관련 제도 (22년 12월 시행법령 포함)

동포 외국인력인 H-2 비자 체류자에 대해 취업 허용업종(허용업종 열거 → 제한업종 외 허용)이 확대되고(2023.1.1.),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외국인 고용보험제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이 확대된다(2023.1.1.).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불응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2.12.10.).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농어업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2022.12.1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사용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을 받는다(2022.12.11.).

2023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상세 내용

1.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 고시 (2023. 1. 1. ~ 12. 31.)															
2022년 : 시급 9,160원	→	2023년 : 시급 9,62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휴 8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부칙)															
*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포함 비율 변경 [기존]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초과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상여금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209시간 기준 100,529원)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209시간 기준 20,105원) 초과분 																	
[참고] 연도별 정기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당해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정기상여금</th><th>현금성 복리후생비</th></tr> </thead> <tbody> <tr> <td>2021년</td><td>15%</td><td>3%</td></tr> <tr> <td>2022년</td><td>10%</td><td>2%</td></tr> <tr> <td>2023년</td><td>5%</td><td>1%</td></tr> <tr> <td>2024년</td><td>0%</td><td>0%</td></tr> </tbody> </table>			구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2021년	15%	3%	2022년	10%	2%	2023년	5%	1%	2024년	0%	0%
구분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2021년	15%	3%															
2022년	10%	2%															
2023년	5%	1%															
2024년	0%	0%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국회 논의 중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부칙(법률 제15513호) 제2조																	
[기존] 30인 미만 사업장 1주 12시간에 더하여 최대 1주 8시간 근로시간 연장 (2022. 12. 31. 만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 																	

2.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변경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5 (2023. 1. 1. 시행)
[기존]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 내용)		
[참고] 제2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기존)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Ⅲ. 노동경제동향

[변경]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

[참고] 제2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개정)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건강손상자녀 업무상 재해 인정·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14, 시행령 제34조의2 (2023. 1. 12. 시행)

[신설]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및 출퇴근 재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악물, 화학물질, 고온·전리방사선 등 유해인자 목록 시행령 별표1 규정
- 건강손상자녀 지급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요양·장해·간병급여 및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한정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실시하고 법에 따른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다만 ① 시행일 전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 ② 시행일 전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녀의 부상, 질병·장애의 발생 또는 사망에 대한 공단의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③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일 이전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 (부칙 제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등 대상확대

산안법 제110조~제112조 (2023. 1. 16. 시행)

- [기존] 양도·제공자 중 대상화학물질 제조·수입자로 한정)는 MSDS 및 화학물질의 명칭 등 자료를 고용부장관에게 제출 등 (2022. 1. 16. 시행)
- 제조·수입한 MSDS 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

[변경]

- MSDS 작성·제출, 제공, 일부 비공개 승인 등의 대상 확대
 - 제조·수입한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산안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72호) 부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나목에 따라 시행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 강화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별표3 (2023. 2. 19. 시행)

- [기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의복 사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등*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천명 이상
- * 별표3 제3호(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제21호(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제23호(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제24호(환경 정화 및 복원업), 제27호(운수 및 창고업)

[변경]

-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대상 강화(의복 사업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 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
- ※ 산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73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Ⅲ. 노동경제동향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21 (2023. 7. 1. 시행)

[신설]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종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적용 직종(16개) 및 고용보험만 적용받는 직종(3개) 추가한 19개 직종 적용 예정
 - 보험설계사, 방과후강사, 퀵서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 추가 직종 : ① 택배 간선기사, ② 화물차주, ③ 유통배송기사
 - 노무제공자 실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 징수 및 급여지급,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50%부담
- ※ 휴업급여, 보험급여 산정기준,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은 부칙(법률 제18928호) 규정

굴착기 작업 근로자 보호조치 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2~4 (2023. 7. 1. 시행)

[신설]

충돌위험 방지조치(제221조의2)

- 사업주는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우 및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굴착기에 부착
- 사업주는 굴착기로 작업을 하기 전에 후사경과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

좌석안전띠의 착용(제221조의3)

- 사업주는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토록 해야 함
- 굴착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잠금장치의 체결(제221조의4)

- 사업주는 굴착기 퀵커플러(Quick coupler)에 버킷, 브레이커(Breaker), 크램셸(Clamshell) 등 작업장치를 장착 또는 교환하는 경우 안전핀 등 잠금장치를 체결하고 이를 확인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28조의2, 시행령 제96조의2 (2023. 8. 18. 시행)

[기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온도, 조명 등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 (2022. 8. 18. 시행)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변경]

-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준수 사업장 확대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일부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 *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 ※ 산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73호) 부칙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행

Ⅲ. 노동경제동향

3.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분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관련 규정 개정	근로자참여법 (이하 근참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2022. 12. 11. 시행)
<p>[기존]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이 시행령(舊령 제3조)에 규정, 근로자위원 입후보 요건으로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규정</p> <p>[변경]</p> <p>협의회의 구성(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시행령 내용 법률로 상향 (구령 제3조 → 개정 법률 제6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위원선거인을 근로자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 -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되는 자로 함 -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령 개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상향된 규정 삭제 (舊 시행령 제3조) -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종사근로자)여야 함 - 근로자위원 입후보시 추천 요건 삭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이상 추천) <p>※ 본 규정은 이 법(시행령)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률 및 시행령 각 부칙 제2조)</p>	

4. 사회보험 및 고용정책 분야

건강보험료율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 1. 1. 시행)

[기존] : 직장가입자 : 6.99%,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

[변경]

• 직장가입자 : 7.09%, 지역가입자 :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3. 1. 1. 시행)

[기존] 건강보험료액의 12.27%

[변경]

• 건강보험료액의 12.81%

[참고] 최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및 전년 대비 인상률 추이 (단위 : %)

① 건강보험 (요율 : 보수월액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율	6.24	6.46	6.67	6.86	6.99	7.09
인상률	1.96	3.53	3.25	2.85	1.89	1.49

Ⅲ. 노동경제동향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액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요율	7.38	8.51	10.25	11.52	12.27	12.81
인상률	12.67	15.31	20.45	12.39	6.51	4.40

동포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2023. 1. 1. 시행)

[기준]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업종은 300인 이하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으로 제한

[변경]

- 방문취업 비자(H-2) 체류자의 취업 허용업종을 숙박업, 출판업을 비롯한 인력부족 업종에 대하여 확대하도록 하고 이에 별표1의2를 개정
- ※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개정안임.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2023. 1. 1. 적용)

[기준]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변경]

-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의무가입, 실업급여 임의가입)
- ※ 고용보험법 (법률 제1626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6호 (2023. 2. 3. 시행)

[신설]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도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해 산재보험이나 그와 유사한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제재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56조 (2022. 12. 10. 시행)

[신설]

- 실태조사 불응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설치의무 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사용자 고용허가 제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2 (2022. 12. 11. 시행)

[신설]

-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